

## “사슴이 30년 점령” 영광 안마도 주민들 삶 터전 되찾는다

### 버려진 사슴 10마리 1000여마리로 늘어 각종 피해 속출 주민들, 국민권익위에 민원...사슴 반출·살처분 길 열려 환경부 조사 후 ‘유해 야생동물’ 지정 시 총기 사용 가능

개체수가 1000여 마리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슴 무리 때문에 30여 년간 고통 받아온 섬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되찾게 됐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사람보다 사슴이 많은 섬으로 불리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 주민들이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안마도는 꽃사슴과 엘드사슴 1000여 마리에 점령당한 지 오래다. 섬에 사슴이 처음 들어온 건 1985년께다. 축산업자 3명이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섬에 들어온 사슴 10마리가 야산에 버려진 뒤 개체수가 1000여 마리까지 늘어나면서 밭작물과 묘지를 파헤치고 밤에는 울음소리 소음 문제로 섬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개체수가 1000여 마리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슴 무리 때문에 30여 년간 고통 받아온 섬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되찾게 됐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사람보다 사슴이 많은 섬으로 불리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 주민들이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안마도는 꽃사슴과 엘드사슴 1000여 마리에 점령당한 지 오래다. 섬에 사슴이 처음 들어온 건 1985년께다. 축산업자 3명이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섬에 들어온 사슴 10마리가 야산에 버려진 뒤 개체수가 1000여 마리까지 늘어나면서 밭작물과 묘지를 파헤치고 밤에는 울음소리 소음 문제로 섬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야생화된 일부 사슴 무리는 바다를 헤엄쳐 인근 부속 섬 석만도까지 진출해 그곳에서 또 번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사슴 무리는 주민들이 애써 키운 밭작물과 조경수 잎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고 심지어 조상 묘를 파헤치는 지경까지 이를 만큼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여기에 야생성이라 고요한 밤에 수십 마리씩 무리 지어 뛰어다니고 특유의 울음소리로 소음을 발생해 주민들의 숙면까지 방해하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섬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슴 개체수를 줄여 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결과 ‘무단 유기·방치된 가축’ 처리 방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 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16일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하고 법정 관리 대상 ‘(유해)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다. 유해 동물로 지정되면 총기를 사용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계부처는 ‘법정관리 대상 동물’로 미지정되면 포획해 축산업자에게 인계하거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섬 주민과의 공생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2월까지 안마도 사슴에 ‘광복병’ 등 가축 전염병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감염



1985년 안마도 주민 3명이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섬에 들어온 사슴 10마리가 야산에 버려진 뒤 개체수가 1000여 마리까지 늘어나면서 밭작물과 묘지를 파헤치고 밤에는 울음소리 소음 문제로 섬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된 사슴은 바로 살처분하고 병이 없는 사슴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 밖으로 반출해 원하는 축산업자에게 분양 영광=서희권기자

## 광주·전남 이낙연 신당 지지세는?...박시중 탈당, 신당 합류



박시중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7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새로운미래’ 합류를 선언하고 있다.

제3차대 신당이 제22대 총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광주·전남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나타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계로 민주당 광주 광산에 출마할 예정이던 박시중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7

호남, 과거 안철수 신당 경험 트라우마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 17명 신당 비판 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박 전 행정관이 민주당 탈당 후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인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면서, 총선 출마 지역구에 변화가 예상된다. 박 전 행정관은 “광산에서 지금까지 도전을 했고 출마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출마 지역구를 포함해 내 거취는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행정관은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중 신당 합류의 뜻을 갖고 있는 분이 없지 않다”며 “광주 서구율이 전략지구로 결정되면서 출마 준비를 한 분들이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고민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은 과거 안철수 신당 경험으로 트라우마가 있다. 호남에서 만들어졌던 중양에서 실패하고 나중에는 국민의힘과 합당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제3차대 신당은 그때와 다를 것이다. 이번은 반대로 수도권 중심 바람이 일어 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광주·전남은 이 전 대표가 정치적 밧줄을 묻은 곳이지만, 아직 신당 지지세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이 16일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새로운미래 등 제3차대 참여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탈자 일부가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경선이 늦춰질 경우 신당 합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민주당 이탈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신당의 정치적 생명성과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18명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한국회의당 대표를 제외한 17명이 민주당 소속이며 대부분 이 전 대표 신당 창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희면기자

## 광주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수산대전’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 환급된다. 광주시는 오는 26일부터 4월7일까지 양동시장, 대인시장, 무등시장, 남광주시장, 월곡시장, 봉선시장 등 6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산대전은 다음달 2~8일 설 특별전, 매주 금·일요일 2주동안 주말 특별전 형태로 진행된다. 각 시장별 행사일정은 양동시장 26~28일·2월2~4일, 무등시장 2월16~18일·23~25일, 월곡시장 3월1~3일·8~10일, 대인시장 15~17일·22~24일, 봉선시장 29~31일·4월5~7일이다. 남광주시장은 2월2~8일 7일동안 봉선

시장 2월2~8일, 설 특별전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수산대전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원)한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편의를 위해 오는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남광주시장 등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박선희 경제정책과장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설 성수품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대전을 열게 됐다”며 “수산대전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 건강한 밥상의 시작

#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

엘로우시티 Jangseong 장성군